

10년만의 독립선언

김국-김애경 집사 셀리더로 거듭나기



진부한 표현이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근 10년 동안을 한 셀에서 섬긴 사람이 있을
을 아는가? 그것도 셀원으로 곳곳이... 마침내 그들이 리더로 나선다. 끈질김의 모범을 보이다 드디어 독립선언을 한 부
부, 김국, 김애경집사다. 그들이 셀에 참여하기 시작한 게 바야흐로 2003년5월, 교회창립이 6월이니까 교회보다 더 오래
됐다.

“창립에 앞서 셀처치를 먼저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가 믿음의 씨앗들 셀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이어 왔습니다. 그때 함
께 시작했던 셀이 이젠 별로 남아있지도 않은 것 같네요.”

그 동안 초등학생 아이는 훌쩍 커서 대학원에 진학했고 30대 푸르름으로 활기 넘쳤던 햇병아리 부부는 어느덧 흰머
리 희끗한 보기 좋은 중년의 모습으로 변했다.

“제 스스로를 리더형이 아닌 참모형이라 진단했습니다. 받쳐주는 역할... 그래서 전혀 독립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죠. 물
론 셀원들이 자꾸 독립할 때마다 눈치도 보였고 인간적인 충동도 받았지만 그냥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사실
은 그게 다 핑계였어요.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고 리더로서 나서는 것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더 강했던 거죠.”

“특히 셀리더가 되어서 혼자 나가는 가정들이 있을 때는 남편이 우리라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감을 느

끼며 고민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실 때 나가자고 했지요.”

어느 날 금요일 부흥회에서 기도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독립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먼저 나서서 셀리더로 추천해달라는 애길 하기도 멋쩍어 하나님께 사인을 요구했다. 셀리더로부터 먼저 제안이 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따르겠노라고. 그런데 바로 며칠 뒤 셀리더(이종수-이성숙 권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3년쯤 전부터 부인 김애경집사에게는 그런 독립에 대한 마음이 은근히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부부셀은 누구보다 남편이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그냥 때가 되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지금은 더 없이 순수하고 든든한 믿음을 보이는 두 사람, 그러나 캐나다에 오기 전 남편은 아예 하나님을 몰랐고 김애경집사는 겨우 교회문턱을 밟는 정도에 불과했다. 말하자면 그들의 믿음은 그레이스 교회와 더불어 뼈대가 형성되었고 셀과 더불어 살이 붙어 나갔다. 당연히 그들의 지난 10년은 말씀 가운데 자아를 복종시키는 지난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 동안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제일 큰 변화는 세상적 욕심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사실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점차 한 발자국씩 멀어져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하니 부부문제를 비롯해서 안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신기하게도 풀려나더군요.”

담담하게 회상하지만 김국 집사는 이민 오자마자 주식에 투자해서 가져 온 재산의 90%를 몽땅 날렸다. 특히 재물욕이 강했던 그로서는 참담한 인생의 실패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극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기도 했다. 당연히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또한 극으로 치달았다. 싸우고 화내는 날이 많아졌고 그때마다 그는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려, 어딘가로 떠나버리려 씩씩거리며 짐을 꾸리는 게 다반사였다.

“제 남편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아주 민감하고 예민해서 잠자리에서도 제가 조금만 부스럭거리면 아예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곁에서 보기에 딱하고 민망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어요.”

남편이 그러니 아내 또한 어디 한 시라도 마음 편할 날이 있었겠는가? 그녀는 혼자 교회에 나와 울며불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평생 새벽기도의 제단을 쌓으리라 결단하였고, 한편으론 셀을 통해 함께 내려놓음을 거듭 되풀이하면서 스스로를 추스리게 되었다. 그러자 비로소 가정도 사업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렇게 10년, 이제 김국 집사는 나누고 섬김을 먼저 생각할 정도로 속 깊고 마음 넓은 사람이 되었다. 놀라운 것은 그 동안 그를 줄곧 괴롭히던 병마마저 어느 순간 떠나버린 것이다. 허리통증을 비롯해 그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쇠잔하게 하던 많은 질병들이 다 달아났다. 또한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라는 공통분모가 생겨 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이전 부딪히는 일조차도 거의



없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누군가 10년 전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도무지 이 사람이 그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일 것이다.

오랫동안 셀을 함께 했으므로 당연히 사연도 많고 아쉬움도 많을 터, 그에게 지금의 셀리더란 어떤 존재들일까?

“저에게 현재 셀리더들은 친형이나 형수 이상입니다. 이민 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을 때 따르면서 많은 걸 배웠지요.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함께 셀 생활을 하다 분가하신 분들의 인생을 내내 곁에서 지켜보면서 돈 주고는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높은 산 위를 오르기도 하고 깊은 골짜기를 헤매기도 하는 가정들의 부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쓰시고 역사하시는 지 알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지요.”

김애경집사도 거든다.

“지금 셀리더와는 잘난 거, 부족한 거, 못난 거, 인간적인 면, 그런 모든 것들 너무도 서로 잘 알아요. 말 그대로 그냥 형제자매죠. 뭘 말을 하면 무슨 뜻인지 서로 속까지 꿰뚫고 스스로 알아서 기도해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난 게 얼마나 귀한지요. 어디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저희에겐 정말 큰 축복이죠.”

그런 분들과 헤어짐을 앞두고 있다. 매주 만나 울고 웃고 10년 세월을 지내다 이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벌써 가슴 한 켠이 시려온다. 특히 그 동안 많은 가정이 분가한 뒤 자연히 뜸해질 수 밖에 없는 모습을 봐왔다. 그게 싫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분가를 계기로 그 동안 분가하였던 가정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추진하고 싶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만큼 셀 오픈 시기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자 답을 주셨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셀원이 없어도 너희 가정에서 먼저 예배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시더군요. 저희 둘 다 각 집안에서 믿음의 시조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더불어 네 식구만이라도 먼저 예배를 시작하라고요. 함께 셀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도하다 보면 때에 맞춰서 보내주시겠죠. 그러면 그 영혼이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감사하겠어요.”

셀원으로만 10년, 도가 튼 이들은 셀원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도 똑 부러지는 입장을 보인다.
“셀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리더를 따르는 마음이 필요해요. 셀리더도 인간적으로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리더이기 때문에 감수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셀원들은 절대적으로 그 권위에 순복해야죠.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해요. 부족한 부분을 보면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 동안 믿음이 없던 저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 믿음이 자란 거 같아요. 셀리더의 기도와 눈물과 사랑을 먹고 자랐으면서 셀원들이 어떻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잘나면 잘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말씀도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 영혼을 위해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사랑하면

그 진실한 마음이 다 전해질 거라 믿어요”

오랫동안 셀을 경험하면서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온 그들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리더, 사람을 세우는 셀리더가 되는 소망을 안고 새로운 항해에 나선다. 그들이 탄 배의 이름은 ‘동행’이라 이름 지어졌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다른 이들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이 항해를 통해 그들은 낮은 곳에서 일으킴을 받고 세움을 받았던 자신들처럼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고 싶다. 그 일을 위해 지금 사랑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기도와 사랑이 있는 한 돌아섰다가도 돌아와요.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구요. 말로는 회복을 못 시키지만 눈물의 기도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랑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해지더군요. 말씀도,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 영혼을 위해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사랑하면 그 진실한 마음이 다 전해질 거라고 믿어요.”

김국 집사는 아울러 꾸준함과 성실을 강조한다.

“리더에게는 ‘꾸준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엔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데 무엇보다 끝까지 놓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짜기에 있을 때나 산 위에 있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셀모임은 예배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공연한 오해를 살 때도 있겠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리더의 자세이고 셀로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주옥 애길 듣고 보니 이 부부 입에서 나오는 말 마디마다에 공명하지 않을 수 없다. 셀에 대해서 가히 통달의 지경에 이른듯하다. 리더의 자세, 셀원의 자세, 셀의 역할 등 하나도 허투로 들을 수 없이 셀처치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신앙의 기초실습 현장인 셀에서의 10년 세월, 쉼 없이 축적된 그 산 경험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들은 10년간 묵혀있지만 한 게 아니라 더 든든한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 발아를 일부러 늦추고 있던 게 아닌가 싶다. 이제 또 하나의 ‘믿음의 씨앗’이 밴 쿠버 지역을 정처로 심겨진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며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더 큰 나무로 자라나 좋은 열매를 맺고 큰 그늘을 내어 더 많은 이들의 ‘동행’이 되리라 기대하시며. ♣ [김영규 기자]